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박병수 | 남원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parks58@korea.kr)

# 광치천의 역사와 문화

서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남원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배경으로 춘향가와 춘향전의 판소리과 고전 문학의 꽃을 피운 사랑의 도시이다. 남원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문화로 대표될 수 있는 춘향 문화를 간직한 고장이기에 21세기 문화 콘텐츠이며 영원한 사랑의 무대이다.

또한 정유재란 때 이 땅을 지키기 위해 6만 여명의 왜군과 혈전투구하다 순절한 1만 여명의 민·군의 호국선현의 넋이 잠들고 있는 곳이 바로 남원성민들의 피로 이루어진 광치천 역사와 함께한 만인의총이다.

## 1. 요천 - 광치천 위치

### 가. 지리적 위치

남원시는 전라북도 내에서 보면 동부 산지의 아랫부분을 차지한다. 동쪽과 남쪽은 지리산지, 북쪽은 진안고원, 서쪽은 적성강과 우수천에 의해 구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쪽과 남쪽이 큰 산맥에 의해 경계되어지고 있는 관계로 산지와 산간 분지가 대부분이다. 이런 지형적 조건 때문에 농경지 비율이 전라북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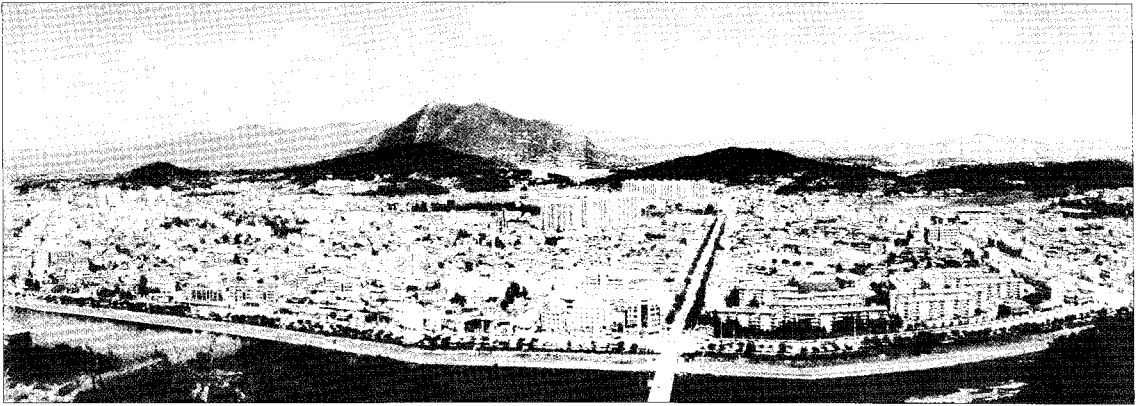
간분지에 발달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북으로 계룡산과 청룡산이, 남으로 지리산이, 동으로 운봉고원에 의해 구획되고 있으며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요천이 흘러가 섬진강으로 합류하며 요천 지류인 지방하천 광치천은 호인사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11km 유하하다가 시내(조산동)에서 요천으로 합류한다.

더불어 광치천은 3개 동 59개 통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700년경에 김해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한양을 가다가 이곳에서 쉬게 되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경치가 일품으로 한양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착한 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향교동 지역으로 광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 나. 관계적 위치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동부산악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3도(전북, 전남, 경남) 1시(남원시) 8군(임실·순창·장수군과 전남 곡성·구례·담양군, 경남 함양·하동군) 등과 인접함에 따라 다른 시·군에 비해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남원시(요천) 전경

#### 다. 수리적 위치

남원시의 대표적인 하천은 요천으로 시내 중심부를 흐르며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재에서 발원하여 변암면을 거쳐 남원시 상류인 산동면에 이르며 시내 조산동에서 광치천과 합류하여 섬진강으로 합류한다. 수리적 위치는 위도로는 N35°22'에서 N35°27'까지로 중위도에 위치하며, 경도로는 E127°20'에서 E127°27'까지이다.

## 2. 국악의 성지, 동편제 판소리와 남원농악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남원 하면 국악을 빼놓을 수 없다. 백제 때부터 통일 신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예술인들이 기라성처럼 남원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며, 통일신라 때 옥보고는 거문고를 가지고 운상원(운봉)에서 50년이나 제자를 가르쳤다고 한다. 남원 지역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음악의 천재 옥보고, 가왕 송흥록, 동편제의 맥을 잇고 있는 명창 인간문화재 강도근의 3인을 말한다.

옥보고는 경덕왕 때(742-764) 신라인 사손(신라 17관등 중 8번째 관등)이었던 공영의 아들로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50년 동안 거문고를 읽히고 새로운 악조 30곡을 작곡하였다고 한다.

송흥록은 판소리계에서 가왕(歌王)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 송흥록 단 한 사람 뿐이다. 그는 조선조 말 순종·헌종·철

종 3대에 걸친 명창으로 운봉면 화수리에서 태어났으며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이다.

남원에서 동편제의 시조 송흥록의 마지막 맥을 이어가고 있는 명창이 강도근이다. 씩씩하고 웅장한 가락의 맛을 특징으로 삼는 동편제의 판소리는 섬진강 동쪽 지역에 위치한 남원을 중심으로 구례 순창 출신의 명창 등에 의해 많이 공연되었으며 송흥록을 시조로 삼는다.

이밖에도 남원의 명창들은 하늘과 땅 사람의 세가지를 두루 갖추었다는 권삼득, 줄타기의 명수로 대원군의 사랑을 받았다는 장재봉, 판소리 200년사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한 송만갑을 비롯하여 유성준, 김정문, 장행진, 이화중선, 박초월, 강백천, 안숙선 등 많은 명창들이 남원출신 명창들이 다(그림 2).



〈그림 2〉 남원 국악의 성지 및 국악대전

### 3. 명승 유원지

#### 가. 광한루(廣寒樓)

남원의 대명사는 춘향골이며 춘향전의 무대는 광한루이다. 광한루는 춘향전으로 더욱 유명해졌지만 춘향전이 창작되기 이전인 고려 때부터 성 안의 유일한 명소였다. 광한루라는 이름은 1444년 정인지가 달나라에 있는 궁전 청허부(淸虛府)처럼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수 차례에 걸쳐 증축하였으나, 1597년 정유재란 때 왜적들에 의하여 불타고 1638년 남원부사인 신감(申鑑)이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러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림 3).



〈그림 3〉 남원 광한루원

#### 나. 만인의총(萬人義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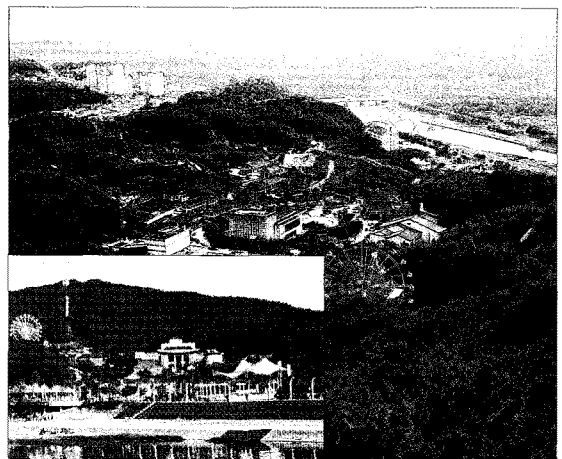
춘향이 고개를 넘어 남원 시가지로 접어드는 구 길목인 향교동 왕산 남쪽 기슭에 정유재란 때의 호국선현의 넋이 잠들고 있는 곳이 바로 만인의총이다. 임진왜란 때 수전을 택해 패배했던 왜적은 1597년 11만 대군으로 우군과 좌군으로 나눠 남원성을 56,000명이 공략했다. 병사 4,000여명과 성민 6,000여명을 포함한 1만 여명의 의사는 혈전분투 하다가 장열하게 모두 순절하였다. 1979년 99,000m<sup>2</sup>의 부지에 영역 및 주차장을 갖추었으며 매년 9월 26일 제향을 모시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이다(그림 4).



〈그림 4〉 만인의총

#### 다. 춘향테마파크

요천변에 위치한 춘향테마파크는 남원관광단지 내에 춘향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66,462m<sup>2</sup>의 면적에 만남-맹약-사랑-이별-시련-축제의 장 5개 마당으로 구성되어 2004년도에 개장하였다.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 부모·형제·친구간 효도 및 우애를 다지고 싶은 사람은 자연과 숲속에 자리 잡은 춘향테마파크에 꼭 다녀가야 할 명소이다. 이러한 춘향테마파크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구구절절 베어있는 요천 강을 끼안고 있다(그림 5).



〈그림 5〉 춘향테마파크

#### 라. 혼, 손끝의 예술 도자기 및 목기공예의 고장

예로부터 손끝이 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남원 사람들, 도자기, 목기(제기와 바리), 부채, 상, 한지 등을 만드는 데서부터 그 소박한 아름다움과 멋을 일구고 전승해 왔다.

3대째 백동연죽을 만들고 있는 왕정동 황영보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조 5백년 동안 왕실의 제기를 만들어왔을 만큼 유명한 남원의 목기는 지금도 전국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유재란 때 남원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망향의 노래로 전승해 불려오고 있는 우리의 옛 노래, 남원의 도예는 가고시마현 사쓰마야키와 아리타야키의 원조가 되었다. 남원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남원도공의 후예인 도예가 심수관씨 일행에게 고향의 불씨를 채화하여 나누어주고 일본으로 불씨를 봉송하는 등의 1998년 남원도자기 전래 400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이 오늘이소서」 노래담을 광치천변에 세웠다.

#### 4. 청정 강·하천을 끼고 있는 남원의 맛!

천부지지 옥야백리의 고장인 남원은 예로부터 요천이라는 삶의 터전이 있었다.

특히 섬진강의 상류인 남원의 맑은 하천인 요천(廖川) - 광치천 안에는 바로 삶과 문화가 살아 꿈틀거리는 맛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나 단골 메뉴로 찾는 남원의 요천에서의 생생한 민물고기의 매운탕은 한국의 일품이자 명품이었다. 강·하천을 거슬러 소금배가 다니던 순자강(금지-대강면 섬진강)변과 요천변의 죽향(竹巷)은 바로 요천의 맛을 알린 생생한 현장이었다(그림 6).



〈그림 6〉 1920년대 요천 소금배

“요천-광치천”의 맑은 물엔 늘 고기가 흔했다. 봄부터 가을

까지는 강심에 뛰다니며 이리저리 고기떼를 쫓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고기잡이들이 끊임 사이가 없었고 밤에는 횃불을 켜 들고 불빛에 모여드는 고기떼를 찾아 헤매기가 일쑤였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면서까지 고기를 잡기도 하고 낮에 고기 잡는 것과 밤에 잡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풍경을 자아내니 옛 선비들은 그 중에 밤에 횃불로 고기를 잡아 음식으로 먹는 맛을 더 그리워하였다.

요천의 풍경은 그렇게 일상에 짜들어 사는 고단하고 지친 우리네 삶에 일종의 여흥이 되고도 남았다. 요천수 양 옆길의 도로와 요천 둔치 길은 섬진강 요천의 풍경과 요천의 민물고기(천어) 매운탕에서 그 즐거움의 절정이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도 아득한 요천에 대한 추억 같은 것들이 많다. 바로 몇 십년 전만해도 우리의 맑은 하천에는 요천수의 자연환경을 터전으로 많은 민물고기 매운탕집이 참으로 많았다. 남원의 대표적인 하천인 요천과 죽천(광치천), 그리고 그 유명한 순자강의 아름다운 하천에 늘 청정 은빛 물고기 은어를 비롯하여 붕어, 메기, 피라미, 쉬리 등을 비롯한 수백 종의 민물고기가 많았던 덕분에 민물매운탕의 천국이었다.

#### 남원의 맛은 전국의 으뜸

[동국여지승람]에는 남원 요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 문구가 있다. 남원의 은어와 은구어가 남원만의 지역 특산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요천 은어회와 민물, 은구어, 붕어매운탕의 명성이 높았다는 대목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삼복철의 순자강 은어는 그 씨와 알과 맛이 좋아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벼논에 김매기를 마치고 난 백중철의 은어 잡이는 인근 각지의 고장에서 샘을 낼 정도로 요천 민물고기 잡이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은구어도 특산물로서 인기였는데 은구어는 일명 도루묵이라고 칭하는 물고기로서 머리가 크고 몸통이 적으며 바닷물과 민물이 접촉하는 해변에 주로 살아서 일명 은조어라고 했다. 그러한 물고기가 바로 남원 요천에 너무나 많이 잡히고 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남원 특산물 19종의 하나로 금인으로 칭한 은어는 조선시대의 중요문헌에

도 적혀 있어 음식의 고장인 남원을 대변한다.

섬진강 요천수는 바로 남원의 맛의 근원이었으며 지금도 요천의 상류인 이백면, 주천면 일대와 금지면, 대강면 순자강 변에서는 그 남원의 참맛을 자랑하고 있다.

(남원의 맛 - 요천 매운탕과 순자강 은어/박찬용 자유기 고가 글 중)

추어탕의 원조 남원

남원에서 생산 및 잡은 미꾸리로 추어탕 맛은 일품 - 미꾸리는 토종이며 미꾸리지는 토종이 아니라는데 ...

추어탕은 가을에 미꾸리지가 많이 잡히며 노릿노릿 살이 통통하게 올라 가을 음식으로 최고로서 스테미나에도 좋아 건강식품으로 전국 곳곳에 추어탕집이 많으나 남원 광한루 주변 많은 추어탕집들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추어탕의 명소이다.

- 남원을 찾오는 관광객의 추어탕 음식문화는 필수 -

5. 이러한 요천과 광치천은 어떻게 관리하여 왔을까?

가. 수질 현황

섬진강수계의 남원시 요천 및 광치천의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에 따른 오염원자료 분석결과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인구 및 산업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축산두수의 경우 증가하였으며, 오염부하량 평가결과 2008년의 경우 발생 부하량은 1,881.6kg/일 발생하였으나 배출부하량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604.2kg/일 로 감소하였다.

수질의 경우 최근 5년간 요천 모니터링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요천은 비교적 깨끗한 수질(1a-1b등급)을 유지 하고 있으나 광치천은 상류부의 축산농가 및 전·답의 비점오염원과 과 불완전한 하수관거로 인하여 BOD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1).

나. 생태계 현황

요천-광치천의 생물다양성은 비교적 다양하여 74종류가 확인, 동물은 전제 365종(부착조류 55, 어류 40, 수중무척추동물 76, 육상곤충 120, 양서·파충류 10, 조류 57(그림 7), 포유류 7종이 확인 되었으며, 식물은 382종류가 서식하며, 법정 보호종은 13종으로, 이중 동물은 9종으로 어류(1종) 다복장어, 양서류(1종) 두꺼비, 포유류(1종) 수달, 조류(6종)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매, 흰목물떼새, 말뚝가리이며, 식물(4종)으로 땅나리, 쥐방울덩굴, 낙지다리, 태백제비꽃이다. 출현어종은 4차에 걸쳐 조사결과 4목 8과 19종, 368개체가 출현하였다.

잉어과 어류가 11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꾸리과 어류 2

〈표 1〉 요천 및 광치천 수질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현재	
요천	상류	BOD	1.0	0.7	1.4	0.9	0.8
		SS	4.0	1.8	12.2	0.9	1.4
		대장균군수	61	376	126	139	102
	하류	BOD	1.7	1.3	2.0	1.9	2.2
		SS	3.8	2.7	1.7	3.7	2.3
		대장균군수	1,220	524	883	156	313
광치천	상류	BOD	2.7	2.75	2.61	2.90	1.4
		SS	0.71	4.9	1.6	6.9	2.0
		대장균군수	1,802	1,704	1,049	533	488
	하류	BOD		2.6	2.67	2.07	2.0
		SS		4.4	2.36	6.0	9.23
		대장균군수		1,851	1,460	3,104	2,755

종, 다목장어과, 동자개과, 메기과, 통가리과, 꺾지과, 동사리과 어류들이 각각 1종씩 포함되어있다. 돌마자, 갈겨니, 피라미 왕종개 등은 4회 조사에서 다목장어, 참붕어, 줄모개, 메기 등은 1회 조사에서 적은 수로 출현하였다. 19종 368개체 가운데 갈겨니 94개체가 출현하여 25.5%의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피라미 48개체(13.0%), 긴물개 44개체(12.0%), 자카사리 27개체(7.3%), 돌마자 25개체(6.8%), 쉬리 22개체(6.0%)로 우세하였다. 우리나라 고유종은 쉬리, 긴물개, 돌마자, 왕종개, 줄모개, 눈동자개, 자카사리, 꺾지, 동사리 등 모두 9종이 출현하여 높은 고유화 빈도를 보였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1급인 다목장어가 1개체 출현하였다(그림 8).

다. 수서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

진안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남해까지 이르는 212km의 섬진강은 굽이굽이 수려한 풍광과 풍부한 수서생태계, 강에

얽힌 이야깃거리, 역사와 문화가 산재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강으로 강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원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지자체와 6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강·하천관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다. 그 예로써는 지방자치단체 하상골재채취영구금지, 2004~2008년까지 섬진강유역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105개소 설치(환경부 사업비지원 1,005억원), 섬진강자키기 대탐사(4회 520명), 토종어류방류(6회 3.6억원) 등 20여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는 강 유역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모범 협의회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토종어류 방류행사는 매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북대 생물다양성연구소와 협의하여 광치천과 요천에 토종어류인 은어, 참개, 메기, 미꾸라지, 자라 등을 매년 50만수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서생태계 관리에 노력하여 왔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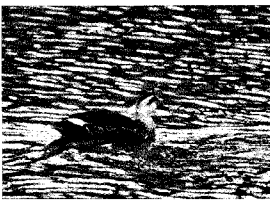
2005년 요천 및 광치천 생태계 조사자료



논병아리



쇠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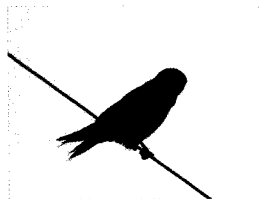
흰뺨검둥오리



원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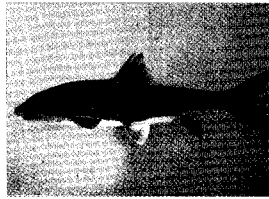


집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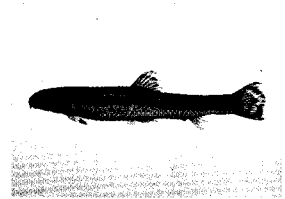


황조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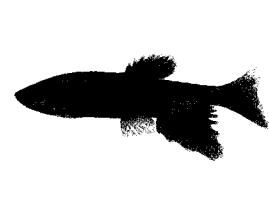
(그림 7) 광치천의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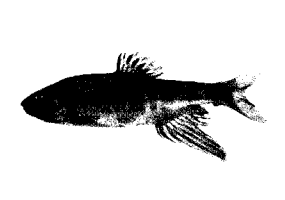
누치



줄모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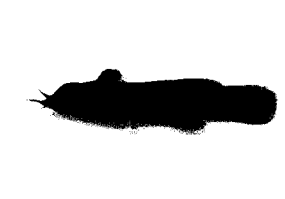
참갈겨니



피라미



왕종개



자카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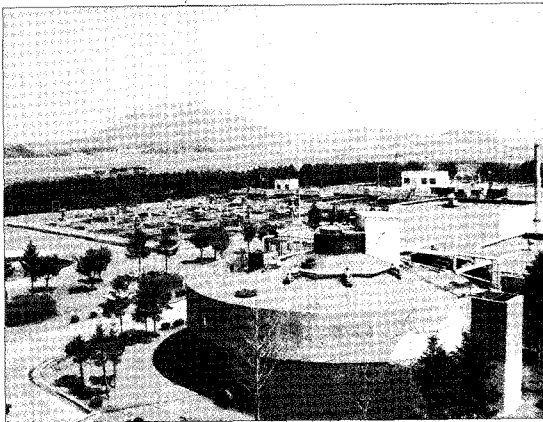
(그림 8) 광치천의 어류



〈그림 9〉 토종어류 방류행사/요천

라. 그동안 요천과 광치천 관리는?

시내권 수질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계획하여 1995년 말 주생면 중동리 부근에 50,000m<sup>3</sup>/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시내 동지역과 일부 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31,660m<sup>3</sup>/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섬진강수계오염총량제시행에 따라 노후된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N, P 등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남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오염원 중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류부 축산농가 정비를 위한 신생마을(인구 54세대 102명, 면적 154,476m<sup>2</sup>) 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소요예산 110억원을 들여 축산 농가를 중점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물철거, 개별 이주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토지 58필지 54,160m<sup>2</sup>, 건물 186동을 매입하여 축산 농가로 인한 오염원을 정비하여 왔으며, 시민 친수공간으로 2007년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Clean NamWon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요천 및 광치천 살리기 운동을 펼쳐 도심권내 청결하고 깨끗한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1〉 Clean NamWon 청결의 날

참고문헌

- 노상준(1992년), 남원문화원 남원전통예술의 맥.
- 남원시(1997년), 남원의 마을 유래.
- 남원문화대전.
-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보고서(2008년).
- 남원시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자료(2005~2008년).